

영암 삼포지구에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

내년도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8년까지 350억원 투입 농업부산물 활용 생산 모델

영암 삼포지구에 정부 주관 수소도시가 조성된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내년도 제4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영암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주도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수소경제 육성 사업이다. 이번 영암군 수소도시 선정은 지난 1기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호남권에 2개 이상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이 최초다. 이로써 전남은 수소 산업 육성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영암 수소도시시는 3년간 국비 115억원을 포함한 총 350억원을 2028년까지 영암 삼포지구에서 농업부산물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업부산물 기반 수소 생산은 유럽·미국 등 50여 개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국내에서는 영암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를 추진한다. 왕겨·볏짚·무화과 줄기 등 전남의 풍부한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왕겨·볏짚 등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연간 730t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1.7km 수소 배관을 구축하며 인근 아파트와 삼포지구 숙박시설에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삼포지구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용차 7대를 수소차 전환과 수소버스 2대 도입을 추진해 교통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을 확대한다. 조선업이 집적된 대불국가산단에 용접용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병행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이송·활용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맞춤형 통합 안전 시스템을 구축, 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수소도

시를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전남도는 2026년 3월까지 수소도시 종합계획과 세부시설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수소선도 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도는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정책에 발맞춰 동부권에 이어 서부권에도 수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미래 청정수소 산업을 전남이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촉촉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철저한 사업 관리로 차질 없이 추진해 서부권 청정수소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말바우 등 전통시장 11곳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오는 5일부터 광주지역 11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말바우시장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시장’으로 지난 26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송정매일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5개소에서 열린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대인시장연합,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9개소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돌려받는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예를 들어 5만원 어치를 구매하면 6만7000원 미만에 해당돼 1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장(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말바우, 무등, 양동전통시장연합)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양문진 기자 yang00@gwangnam.co.kr



부산에서 손잡은 한일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환경부, 화순 등 전국 4개 신규 댐 추진 중단

극심한 주민 반발 등 원인... 남은 댐도 추진 불확실

전남 화순에 신규 댐을 건설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전남 화순군 동북천댐,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 청도군 운문천댐,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정부 때 이미 추진을 중단한 3개 댐(양구군 수임천댐·단양군 단양천댐·순천시 옥전댐)을 더하면 애초 짓기로 한

14개 댐 중 절반은 추진을 멈추게 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홍수와 가뭄에 대응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에 따라 댐 신설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동북천댐은 ‘기존 2개의 댐 사이 신규 댐 건설로 극심한 주민 반발’,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시수전용댐

으로 국고 지원 불가’,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더 나은 대안 존재’가 환경부가 밝힌 추진 중단 이유다. 환경부는 남은 7개 댐에 대해서도 추진을 확정하지 않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 댐 신설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조치하겠다”면서 정책감사를 벌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알림



2025 제14회 중소기업경영인대상

선진경영·고용창출 등 6개 부문...11월 4일 (화) 마감

광주·전남 경제특화 종합일간지 광남일보는 경영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중소기업경영인대상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기법과 차별화된 마인드로 한 해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기업과 경영인을 공모합니다.

공모부문은 △선진경영 △고용창출 △기술혁신 △수출증대 △친환경 경영 △여성·청년CEO 등 모두 6개 부문입니다. 우수 중소기업과 경영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대상 : 중소기업경영인 누구나
- △공모기간 : 2025년 10월 1일 (수) ~ 11월 4일 (화)
- △심사발표 : 2025년 11월 26일 (수) 광남일보 지면 (예정)
- △접수방법 : 광남일보 홈페이지 (www.gwangnam.co.kr) 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gnibo2@daum.net) 접수 (대표 증명사진, 활동사진 2매 이상 이미지 파일 따로 첨부)
- △심사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광주시장상, 전남지사상 등
- △시 상 식 : 2025년 12월 10일 (수) 오후 2시 / 장소 미정
- △주최·주관 : 광남일보, 전라도도, 광주경영자총협회
- △후 원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조달청, 광주상공회의소
- △문 의 : 광남일보 사업국 ☎ 062-370-7090

▶1면 '승정~목포 KTX'서 계속

김 원내대표는 “전남의 균형발전과 산업자원도 챙기겠다”며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과대학이 없다. 도민 건강권과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산업 위기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 통대대학과 국립의대 신속 신설 및 대학병원 설립,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2028년 ‘COP33 여수(남해안 남중국) 유적, 호남고속철 2단계 등 SOC 사업 국고 지원 등을 중점 권의했다. 전남도당 산하 각 지역위원회별로는 △목포대-순천대 통합과대학 설립 △여수산단 CCUS(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클러스터 구축사업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추진 △경전선 전철화 △광양항-울진산단 연결도로 개설 △인공대양 연구시설 나주 정책 지정 △광역 상생협력사업(경마공원) 신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서울~제주 고속도로 건설 △무안 통합바이오파크 조성 등 건의했다.

▶1면 '옛 전방·일신방직'서 계속

하반기에는 2블록 3216에 대한 1차 공급을 우선 진행하려 했지만 시공사 두 곳이 모두 사업을 포기하면서 분양시기도 내년 상반기로 늦춰진다. 챔피언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포스코이엔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며 “시공사 재선정까지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완공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개발 사업 차질이 우려되면서 같은 부지에 개발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건립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7월 광주시청에서 ‘더현대 광주’ 착공보고회를 열고 10월 착공,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 계획을 밝혔다.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전체 추진 계획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오름 (유) 차오름피앤디
CHAORUM Planning & Development Co., Ltd.

A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정로 3, 2층
A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44, 3층 301호
Tel. 062-710-5758 Fax. 062-710-5759
E-mail. corpdn@naver.com

- 농어촌지역개발 타당성 분석, 예비계획,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 측 량 업 공공측량,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드론측량, GIS
- 지 하 수 관 련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이용개발시공
- 시 설 물 안 전 진 단 교량 및 터널
- 종 합 디 자 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리플렛·포장패키지·스토리북·사진첩·조감도 제작
- 엔지니어링사업 토목설계(도로 및 공항·상하수도·토질 및 지질·구조), 도시계획(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감리